

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 K-식품·뷰티·패션 분야 대표기업과의 상표정책 간담회 개최(6.20.)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6. 20.(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심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

** '24년 한류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 : 2.5개월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간담회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엄태민 (042-481-5265)
		담당자	서기관	정희경 (042-481-5266)
	상표디자인심사국 한류상표우선심사과	책임자	과 장	이형백 (042-481-3900)
		담당자	주무관	박주연 (042-481-8232)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강윤석 (042-481-5182)
		담당자	사무관	오세진 (042-481-5999)

1. 간담회 개요

- (목적) 한류 대표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 (일시) '25. 6. 20. (금), 14:00~15:2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대회의실(서울 역삼동)

2.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상표심사정책과장, 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지역산업재산과장 등
- (참석기업) 3개 산업분야(K-식품·뷰티·패션) 기업 임직원 10여 명

3. 세부 일정

시간	소요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08	3'	인사말씀	특허청장
14:08~14:23	15'	I.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 II.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	특허청
14:23~15:13	50'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참석자
15:13~15:20	7'	마무리	참석자